

박홍근 기획처 장관 “5·18단체 중앙회관 건립 검토”

강기정 시장·오월단체와 간담회...문화예술계도 만나 오월정신 계승 위한 보훈정책·기념사업 발전 방향 논의 문화전당 상징성 향상·전남도청 역사적 가치 반영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보훈·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 정책과 기념사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재혁 민주유공자유족회장, 윤남식 공로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5·18 3개 법정 보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회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중앙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5·18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교육·홍보 활동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5·18 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제껏 정부는 국

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교육·취업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연·전시·창작·교류 기능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추진 중인 ‘빛의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문화전당의 상징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주화 역사의 상징적 공간이 복원을 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보훈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월을 뜻하는 다섯손가락을 내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진근 국가보훈부 차관,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제공=광주시청

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회장과 류재한 아시아

문화중심지원포럼 회장, 이정기 작가, 김현재 안무가, 임홍석 한국연구협회 광주지회 회장 등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역 예술인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의 높은 참여 문턱, 수장고 부재 등을 지적하며

작가들의 창작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전시와 작품 매입·소장 기회를 제공해 지역 예술인들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내 공연 시장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뮤지컬·클래식 음악 등 대중성이 있는 일부 장르에 시장 수요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대중 공연 산업의 창작 기반이 되는 연기·안무·음악·미술 등 기초 예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 대통령, 5·18 역사 공간 남광주시장서 시민과 소통

부꾸미·효자손 사고 시래기 코다리 오찬 청 “아름 나누고 상인들 목소리 직접 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8일 오전 제46주년 5·18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남광주시장은 옛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는 역사적 공간이다.

앞서 김혜경 여사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남광주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시민들과 상인들은 “반갑습니다”, “힘나게 손 한번만 잡아주세요”, “최고로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네며 반겼다.

대통령 부부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했다.

한 시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이 대통령과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학교에 있는 아들이 대통령님을 뵈지 못해 아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안부를 전했다.

한 상인은 “어머니가 5·18 당시 시민들에게 주먹밥과 보리차를 만들어 주셨다”며 “오늘 대통령님을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은 수산물 점포를 둘러 “이건 뭐냐”고 묻자 상인들은 “장어와 가물치”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최근 경기 체감 등을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한복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김혜경 여사는 시장 내 한복집 앞을 지나며 반가움을 표했고, 상인들은 “다시 찾아와주세요 고맙다”며 환영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시장에서 부꾸미와 효자손 등을 구입했다.

이어 시장 내 식당에서 시래기코다리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손승기 상인 회장에 점포 운영 상황과 상권 분위기 등을 물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시민들은 “힘내십시오”, “건강하세요”라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배웅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했고,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청와대 안규경 부대변인은 “이날 방문은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살아 있는 광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아

픔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선관위, 6·3 지선 보조금 570억 7개 정당에 지급

민주당 258억8000만원
국힘 237억6000만원
혁신당 46억1000만원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21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국회 의석수 비율, 최근 총선 또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받는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청년 100만 원, 장애인 20만 원)을 곱해 산정한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지방의원선거(광역·기초)에 각각 여성후보자, 장애인 후보자, 청년후보자(33세 이하)를 추천한 정당이 받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최후 항진지’ 옛 전남도청서 역사 의미 되새겨

▶1면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항진했던 ‘최후 항진지’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국가기념식이 열린 것은 2020년 40주년 이후 6년만으로, 복원을 마친 옛 도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과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국민의례에서는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는 국가 계양식도 함께 열렸다. 1980년 5월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기둥방송을 했던 박영순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해 깊은 울림을 더했다.

이어진 기념 공연 ‘오월의 기억’에서는 5·18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 시민들의 일기 등을 배우와 극단이 함께 낭독하며 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가치를 무대 위에 되살렸다.

1980년 당시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았던 고 박효선 열사가 창단한 극단 ‘토박이’도 공연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별공연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과 대

규모 무용단이 참여해 ‘K-민주주의 계승’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오월 정신의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되새겼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른 주먹을 들어 올리며 민주주의 계승 의지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직후 국립 5·18민주묘지와 유영봉안소 등을 찾아 참배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한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5·18 공범단체장과 유족 대표 등과 함께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방명록을 작성하고 헌화·분향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권오을 보훈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전남도, 논콩·밥쌀용 쌀 생산 수급 안정 총력

수급조절용 벼 재배 29일까지 접수...ha당 직불금 550만원

전남도는 최근 논콩 과잉생산 우려에 대응하고 밥쌀용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밥쌀용 쌀과 달리 쌀과자, 떡, 전통주 등 가공산업 전용 쌀로 밥쌀용 쌀과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밥쌀용 쌀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일반쌀과 함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논콩에 대해서도 ‘수급조

절용 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밥쌀용 쌀과 논콩의 적정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전남도는 논콩과 밥쌀용 쌀을 재배하던 농업인이 수급조절용 벼로 더 많이 전환하도록 기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외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먼저 수급조절용 벼 재배 참여 농가에 ha당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과 전남도는 타작물 재배지원 50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논콩에서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 시 ha당 186포대, 논콩에서 밥쌀용 쌀 전환 시 125포대, 밥쌀용 쌀에서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 시 61포대의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접수하고, 시군에서 수급조절용 벼를 수매할 정부지원 RPC를 추천받거나, 직접 선택한 후 공급계약까지 하면 완료된다. 또한 전남도는 2027년부터 전략작물(콩) 전문생산단지 조성,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참여 요건에

‘수급조절용 벼 10ha 이상 재배 법인’을 포함해 수급조절용 벼 생산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콩 과잉생산은 막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참여 농가에는 매년 수급조절용 벼 재배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이 있고, 안전티브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급조절용 벼 확대를 통해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수확기 쌀값을 안정화하고, 공공비축미 인센티브와 고정 출하처 확보, 참여 RPC 운영 활성화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